

NEAR사무국의 경북도의회-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체결 지원 관련 언론스크랩
2019.07.01.(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대구일보	경북도의회-사하공화국의회 한-러 교류 활성화 협약 체결	
2	신문	대구신문	경북도의회, 러 사하공화국의회와 협약	
3	신문	경북일보	신북방시대 맞아 문화 경제 협력 앞장	
4	신문	경북도민일보	경북도의회, 한-러 지방의회 가교 놓다	
5	신문	경북신문	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체결	
6	신문	서울일보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체결	
7	신문	경상투데이	경북도의회, 한-러 교류활성화로 신북방정책 초석 다진다	
8	신문	대경일보	경북도의회-러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력 교류 초석 마련	
9	신문	경상매일신문	도의회, 사하공화국의회 방문	
10	신문	영남매일	경북도의회-러시아 사하공화국 우호협약	
11	인터넷	아주경제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 체결	
12	통신사	NSP통신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체결	
13	인터넷	연합뉴스	경북도의회-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14	인터넷	뉴시스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15	인터넷	쿠기뉴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16	인터넷	프레시안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 체결	
17	인터넷	뉴데일리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	
18	인터넷	에너지경제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체결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이 최근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의회와 우호협력 협약 체결하고 있다.

경북도의회-사하공화국의회 한-러 교류 활성화 협약 체결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최근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사하공화국의회(의장 고 골레프 표트르)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의회는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장 의장의 이번 방문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 의장이 장경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 지난 5월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협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문단에는 장경식 의장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에서도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이 동행했다.

NEAR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다이아몬드·금·천연가스·석유·산림자원 등이 매우 풍부하다.

사하공화국은 장 의장을 통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교류의사를 전했다.

사하공화국 기관장들은 이번 만남에서 “사하공화국은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풍부한 만큼 교류를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경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양 지방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교류의사를 밝혔다.

장경식 의장은 “도의회가 양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의 가교역할을 적극 담당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경식 도의회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경북도와 의 교류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향후 경북도-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문화·경제협력 추진에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의회, 러 사하공화국의회와 협약

한-러 교류활성화 초석 마련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6~30일,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를 방문해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방문단은 장경식 의장을 비롯, 10명의 의원과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에서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이 동행했다.

경북도의회 공식 방문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 의장이 장경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 지난 5월 1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협의한 결과 이뤄졌다.

경북도의회는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면담과 의회간 우호협력 협약체결,



현지 최대 민속축제인 '으쉬아흐' 축제 개막식에 초대되는 등 어느 때보다 알찬 일정을 소화했다.

사하공화국 기관장들은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상생발전하는 바탕이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신북방시대 맞아 문화·경제 협력 앞장”

경북도의회-러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체결
기술력·지하자원 등 교류 활성화로 상생발전 기대

경북도의회가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도의회는 장경식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경북도의원, 김옥재 동북아지역자치연합 사무국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된 경북도의회 방문단이 지난달 말 사하공화국의회를 방문,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 앞으로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회장이 장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지난 5월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협의한 결과 성사됐다.

이번 방문에서 사하공화국측은 사하공

화국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양 지방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밝혔으며, 장 의장은 양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의 가교역할을 적극 담당할 것임을 약속했다.

양 의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향후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문화행사 추진 등 세부적인 교류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하공화국은 우리나라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다이아몬드·금·천연가스·석유·산림자원 등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중앙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사하공화국의 초청이 이뤄져



장경식(왼쪽) 경북도의회 의장과 고골레프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사하공화국의회 의장이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지에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경북도와 사하공화국 간 실

질적인 문화·경제협력 추진에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경북도의회, 한-러 지방의회 가교 놓다

러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 체결
신북방정책 추진 물꼬
문화·경제협력 앞장

경북도의회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를 방문해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장경식 의장을 비롯, 10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에서도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 문위원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리예비치 제1부회장이 장경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 지난 5월 1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협의한 결과 경북도의회의 공식방문이 성사된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면담과 의회간 우호협력 협약체결, 현지 최대 민속축제인 '으쉬아흐' 축제 개막식에 초대되는 등 어느 때보다 알찬 일정을 소화했다.

각각의 만남에서 사하공화국 양 기관장들은 사하공화국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북도의 기술력과 인력 교류를 통해 양 지방의 상생발전에 기여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이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를 방문해 고골레프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의장과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할 것이라는 희망을 밝혔으며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도의회가 양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한-러 간 긴밀한 협력을 바라는 사하공화국의 니콜리예프 아이센 행정수반이 29일 환영행사를 직접 주관하며, 고골레프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공화국 의회의장은 사하공화국 최대 축제인 '으쉬아흐' 축제에 교류단을 초청,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NEAR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

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다이아몬드 금 천연가스 석유 산림자원 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경식 도의회의장은 "중앙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사하공화국의 초청이 이루어져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현지에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향후 경북도-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문화 경제협력 추진에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김우섭기자 kws@hidomin.com

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체결

- 대한민국 30배 크기의 자원 보고(寶庫)
신북방정책의 초석



경상북도의회(장경식 의장)는 6월 26일 ~ 6월 30일,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를 방문하여 우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방문단에는 장경식 의장을 비롯, 10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에서도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회장이 장경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금년 5월 1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협의한 결과 경상북도의회 방문이 성사된 것이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총 4박 5일의 일정 중 하바로프스크 경유로 인한 1박을 제외한 실제 교류기간이 3일인 촉박한 일정에서도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면담과 의회간 우호협력 협약체결, 현지 최대 민속축제인 '으쉬아흐' 축제 개막식에 초대되는 등 어느 때보다 알찬 일정을 소화했다. 각각의 만남에서 사하공화국 양 기관장들은 사하공화국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상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양 지방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밝혔으며,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도의회가 양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의 가교

역할을 적극 담당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한-러 간 긴밀한 협력을 바라는 사하공화국의 열정이 일정에 반영, 니콜라예프 아이센 행정수반이 6월 29일 환영행사를 직접 주관하였으며, 고골레프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공화국의회의장은 우호협력 협약체결은 물론, 사하공화국 최대 축제인 '으쉬아흐' 축제에, 교류단을 초청,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한편 NEAR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다이아몬드·금·천연가스·석유·산림자원 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경상북도와 교류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친선교류단을 이끈 장경식 도의회장은 "중앙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사하공화국의 초청이 이루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현지에서 경상북도와 교류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향후 경상북도-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문화·경제협력 추진에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양 의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향후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문화행사 추진 등 세부적인 교류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재원기자



▲경북도의회는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 사하공화국의회를 방문해 우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지방의회 차원 한-러 교류 활성화 초석 마련

경북도의회(장경식 의장)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 사하공화국의회를 방문 장경식 의장을 비롯, 10명의 의원과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회장이 장경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 지난 5월 1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협의한 결과 경북도의회의 공식방문이 성사됐다.

경북도의회는 4박 5일 일정 동안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면담과 의회간 우호협력 협약체결, 현지 최대 민속축제인 '으쉬아흐' 축제 개막식에 초대되는 등 알찬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만남에서 사하공화국 양 기관장들은 사하공화국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양 지방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밝혔으며,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도의회가 양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의 가교역할을 적극 담당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한-러 간 긴밀한 협력을 바라는

사하공화국의 열정이 반영 돼, 니콜라예프 아이센 행정수반이 6월 29일 환영행사를 직접 주관하고, 고골레프 표트르 바실리예비치 공화국의회의장이 우호협력 협약체결은 물론, 사하공화국 최대 축제인 '으쉬아흐' 축제에 교류단을 초청,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한편 NEAR 의장단체 사하공화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다이아몬드, 금, 천연가스, 석유, 산림자원 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향후 정기적 상호방문과 문화행사 추진 등 세부적 교류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영길기자

경북도의회, 한-러 교류활성화로 신북방정책 초석 다진다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
장경식 의장 '으쉬아흐' 초청 받아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 까지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를 방문해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단에는 장경식 의장을 비롯 10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동북아 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에서도 김옥재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이 동행했다.

방문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회장이 장경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지난 5월 1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협의한 결과 경북도의회를 공식방문이 성사된 것이다.

경북도의회에서는 총 4박 5일의 일정 중 하바로프스크 경유로 인한 1박을 제외한 실제 교류기간이 3일인 촉박한 일정에서도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 면담과 의회간 우호협력 협약체결, 현지 최대 민족축제인 '으쉬아흐' 축제 개막식 초대 등 어느 때보다 알찬 일정을 소화했다.

각각의 만남에서 사하공화국 양 기관장들은 사하공화국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양 지방의 상생발전 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밝혔으며,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도의회가 양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의 가교 역할을 적극 담당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한-러 간 긴밀한 협력을 바라는 사하공화국의 열정이 일정에 반영, 니콜라예프 아이센 행정수반이 지난달 29일 환영행사를 직접 주관했으며, 고골레프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공화국의 회의장은 우호협력 협약체결은 물론

사하공화국 최대 축제인 '으쉬아흐' 축제에 교류단을 초청,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한편 NEAR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다이아몬드·금·천연가스·석유·산림자원 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경북도와 의 교류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친선교류단을 이끈 장경식 의장은 "중앙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의

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사하공화국의 초청이 이뤄져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현지에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향후 경북도-사하공화국간 실질적인 문화·경제협력 추진에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양 의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향후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문화행사 추진 등 세부적인 교류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용진 기자syj@hanmail.net

경북도의회-러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교류 초석 마련

한국면적 30배 해당·자원 풍부
양지방간 상생발전 기대 높아

경북도의회가 지난달 26~30일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를 방문, 우호협력 협약서를 맺고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초석을 마련했다.

방문단에는 장경식 도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원과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에서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이 동행했다.

양 기관장들은 사하공화국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양 지방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환영행사를 니콜라예프 아이센 행정수반이 직접 주관 강력한

교류 희망의사를 밝혔고, 고골레프 포트르 바실리에비치 공화국의회의장은 우호협력 협약을 맺었다.

NEAR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한국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 최대 행정구역으로, 다이아몬드와 금, 천연가스, 석유, 산림자원 등이 풍부해 경북도와 기술 교류 등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장경식 경북도의회장은 “정부의 신북방정책 의지가 높은 시기에 사하공화국의 초청이 이뤄져 기쁘며, 현지에서 경북도와 교류 의지를 직접 확인한만큼 경제 및 문화협력 추진에 도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회는 이번 교류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문화행사 추진 등 세부 교류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임태 기자 sinam77@naver.com

도의회, 사하공화국의회 방문 우호협력 협약...한러 교류 앞장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6일~30일까지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를 방문해 우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단에는 장경식 의장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에서 사하공화국 양 기관장들은 사하공화국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양 지방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경북도의회가 양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의 가교역할을 적극 담당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번 친선교류단을 이끈 장경식 도의회의장은 “중앙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사하공화국의 초청이 이루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현지에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향후 경북도-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문화·경제협력 추진에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종팔 기자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경북도의회-러시아 사하공화국 우호협약

지방의회 차원 한·러 교류활성화 초석 마련

상호방문·문화행사 등 세부계획 마련 예정

경북도의회가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앞으로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3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회장이 장경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지난 5월1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협의한 결과 경북도의회의 공식방문이 성사됐다.

경북도의회는 러시아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면담과 의회 간 우호협력 협약체결, 현지 최대 민속축제인 '으쉬아흐' 축제 개막식에 초대됐다.

만남에서 사하공화국 기관장들은 사하공화국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상북도의 기술력과 인력 교류를 통해 양 지방의 상생발전에 기

여할 것을 약속했다.

장경식 경북도의장은 도의회가 양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의 가교역할을 적극 협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특히 양 의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향후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문화행사 추진 등 세부적인 교류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장경식 경북도의장은 "러시아 현지에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경북도와 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문화·경제협력 추진에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EAR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이다.

또 다이아몬드·금·천연가스·석유·산림자원 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오인 기자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 체결

경상북도의회는 6월 26~30일까지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를 방문해 우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방문단에는 장경식 의장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에서도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의장이 장경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지난 5월 1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협의한 결과 경북도의회의 공식방문이 성사됐다.

경북도의회에서는 총 4박5일간의 일정 중 하바로프스크 경유로 인한 1박을 제외한 실제 교류기간이 3일인 촉박한 일정에서도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면담과 의회 간 우호협력 협약체결, 현지 최대 민속축제인 '으쉬아흐' 축제 개막식에 초대되는 등 어느 때보다 알찬 일정을 소화했다.

각각의 만남에서 사하공화국 양 기관장들은 사하공화국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양 지방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밝혔다.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도의회가 양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의 가교역할을 적극 담당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한-러 간 긴밀한 협력을 바라는 사하공화국의 열정이 일정에 반영, 니콜라예프 아이센 행정수반이 지난 29일 환영행사를 직접 주관했다.

고골레프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공화국의회 의장은 우호협력 협약체결은 물론, 사하공화국 최대 축제인 '으쉬아흐' 축제에 교류단을 초청,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사하공화국은 NEAR 의장단체로 대한민국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이다. 다이아몬드·금·천연가스·석유·산림자원 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친선교류단을 이끈 장경식 의장은 "중앙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사하공화국의 초청이 이뤄져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현지에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향후 경북도-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문화·경제협력 추진에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향후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문화행사 추진 등 세부적인 교류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한-러 지방의회 가교 놓다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6.30

러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 체결
신북방정책 추진 물꼬
문화·경제협력 앞장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이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를 방문해 고골레프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의장과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는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를 방문해 우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장경식 의장을 비롯, 10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에서도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 의장이 장경

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 지난 5월 1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협의한 결과 경북도의회 공식방문이 성사된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면담과 의회간 우호협력 협약 체결, 현지 최대 민속축제인 '으쉬아흐' 축제 개막식에 초대되는 등 어느 때보다 알찬 일정을 소화했다. 각각의 만남에서 사하공화국 양 기관장들은 사하공화국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양 지방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밝혔으며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도의회가 양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한-러 간 긴밀한 협력을 바라는 사하공화국의 니콜라예프 아이센 행정수반이 29일 환영행사를 직접 주관하며, 고골레프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공화국회의의장은 사하공화국 최대 축제인 '으쉬아흐' 축제에 교류단을 초청,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NEAR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다이아몬드 금 천연가스 석유 산림자원 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경식 도의회의장은 "중앙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사하공화국의 초청이 이루어져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현지에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향후 경북도-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문화 경제협력 추진에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러시아하공화국의회와 협약

윤김상만 | 승인 2019.06.30 21:10

| 한-러 교류활성화 초석 마련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6~30일,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를 방문해 우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방문단은 장경식 의장을 비롯해, 10명의 의원과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에서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이 동행했다.

경북도의회는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 의장이 장경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 지난 5월 1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협의한 결과 이뤄졌다.

경북도의회는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면담과 의회간 우호협력 협약체결, 현지 최대 민속축제인 '으쉬아흐' 축제 개막식에 초대되는 등 어느 때보다 알찬 일정을 소화했다.

사하공화국 기관장들은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상생발전하는 바탕이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만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체결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 회를 방문해 우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단에는 장경식 의장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 (NEAR)에서도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의장이 장경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지난 5월 1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협의한 결과 경상북도의회의 공식방문이 성사된 것이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총 4박 5일의 일정 중 하바로프스크 경유로 인한 1박을 제외한 실제 교류기간이 3일인 촉박한 일정에서도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면담과 의회간 우호협력 협약체결, 현지 최대 민속축제인 '으쉬아흐' 축제 개막식에 초대되는 등 어느 때보다 알찬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만남에서 사하공화국 양 기관장들은 사하공화국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상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양 지방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밝혔으며,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도의회가 양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의 가교역할을 적극 담당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한-러 간 긴밀한 협력을 바라는 사하공화국의 열정이 일정에 반영, 니콜라예프 아이센 행정수반이 29일 환영행사를 직접 주관했으며, 고골레프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공화국의회의장은 우호협력 협약체결은 물론, 사하공화국 최대 축제인 '으쉬아흐' 축제에 교류단을 초청,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한편 NEAR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다이아몬드?금?천연가스?석유?산림자원 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경상북도와 의 교류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친선교류단을 이끈 장경식 도의회의장은 "중앙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사하공화국의 초청이 이루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현지에서 경상북도와 의 교류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향후 경상북도-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문화?경제협력 추진에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양 의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향후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문화행사 추진 등 세부적인 교류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경북도의회는 30일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장경식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10명은 26일부터 30일까지 사하공화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이 동행했다.

경북도의회 방문단은 29일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사하공화국의회 제1부의장과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앞으로 정기적인 상호 방문, 문화행사 참석 등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공식 방문은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의장이 지난 5월 1일 서울에서 장경식 의장과 만나 협의한 끝에 이뤄졌다.

도의회 방문단은 의회간 우호협력 협약 체결 외에도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 면담, 현지 최대 민속축제 개막식 참석 일정을 소화했다.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30배에 이르고 다이아몬드, 금, 천연가스, 석유, 산림자원 등이 풍부한 지역이다.

장경식 도의회 의장은 "중앙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 의지가 높은 시기에 사하공화국 초청이 이뤄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북도와 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문화·경제협력 추진에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경북도의회가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앞으로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3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의장이 장경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지난 5월1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협정한 결과 경북도의회의 공식방문이 성사됐다.

경북도의회는 러시아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면담과 의회 간 우호협력 협약체결, 현지 최대 민속축제인 '으쉬아흐' 축제 개막식에 초대됐다.

만남에서 사하공화국 기관장들은 사하공화국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상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양 지방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장경식 경북도의장은 도의회가 양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의 가교역할을 적극 협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특히 양 의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향후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문화행사 추진 등 세부적인 교류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장경식 경북도의장은 "러시아 현지에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경북도와 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문화·경제협력 추진에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EAR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이다.

또 다이아몬드·금·천연가스·석유·산림자원 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대경일보

HOME 종합뉴스 사회

경북도의회-러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한국 30배 크기의 자원 보고(寶庫)에 신북방정책 초석

이임태 기자

승인 2019.06.30 20:51



▲ 장경식 경북도의회장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의회와 교류협약을 맺고 있다.

경북도의회가 지난달 26~30일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를 방문, 우호협력 협약서를 맺고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초석을 마련했다.

방문단에는 장경식 도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원과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에서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이 동행했다.

양 기관장들은 사하공화국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양 지방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29일 환영행사를 니콜라예프 아이센 행정수반이 직접 주관 강력한 교류 희망 의사를 밝혔고, 고골레프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공화국의회의장은 우호협력 협약을 맺었다.

NEAR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한국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 최대 행정구역으로, 다이아몬드와 금, 천연가스, 석유, 산림자원 등이 풍부해 경북도와 기술 교류 등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장경식 경북도의장은 "정부의 신북방정책 의지가 높은 시기에 사하공화국의 초청이 이뤄져 기쁘며, 현지에서 경북도와 교류 의지를 직접 확인한만큼 경제 및 문화협력 추진에 도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회는 이번 교류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문화행사 추진 등 세부 교류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임태 기자 sinam77@naver.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인쇄하기

닫기

경북도의회-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기사입력 2019/06/30 17:47 송고



경북도의회-러 사하공화국의회 우호 협약

(안동=연합뉴스) 29일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에서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왼쪽)이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사하공화국의회 제1부의장과 양 의회간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19.6.30 [경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도의회는 30일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장경식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10명은 26일부터 30일까지 사하공화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이 동행했다.

경북도의회 방문단은 29일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사하공화국의회 제1부의장과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앞으로 정기적인 상호 방문, 문화행사 참석 등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공식 방문은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 의장이 지난 5월 1일 서울에서 장경식 의장과 만나 협의한 끝에 이뤄졌다.

도의회 방문단은 의회간 우호협력 협약 체결 외에도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 면담, 현지 최대 민속축제 개막식 참석 일정을 소화했다.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30배에 이르고 다이아몬드, 금, 천연가스, 석유, 산림자원 등이 풍부한 지역이다.

장경식 도의회 의장은 "중앙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 의지가 높은 시기에 사하공화국 초청이 이뤄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북도와 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문화·경제협력 추진에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6/30 17:47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체결...신북방정책 초석 다져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를 방문해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NEAR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우리나라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이다.

이 곳에는 다이아몬드, 금, 천연가스, 석유, 풍부한 산림 등을 보유한 지원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장 의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1일 서울을 방문한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의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당시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의장은 장경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서울에서 회동을 가졌으며, 협의 결과 만남이 성사됐다.

방문단은 장 의장을 비롯해 10명의 의원,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 등으로 꾸려졌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협약으로 향후 경북도와 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협력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장 의장 일행은 4박 5일의 일정 중 하바로프스크 경유로 인해 1박을 제외한 실제 교류기간이 3일인 촉박한 일정에도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면담과 의회간 우호협력 협약체결, 현지 최대 민속축제인 '으쉬아흐' 축제 개막식참석 등 알찬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한-러 간 긴밀한 협력을 바라는 사하공화국의 열정이 일정에 반영돼 니콜라예프 아이센 행정수반이 지난 29일 환영행사를 직접 주관했으며, 고골레프 표트르 바실리예비치 공화국의회 의장과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이번 친선교류단을 이끈 장경식 의장은 "중앙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사하공화국의 초청이 이뤄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현지에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향후 경북도-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문화·경제협력 추진에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박준 기자 | june@newsis.com

등록 2019-06-30 13:09:29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안동=뉴시스】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가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앞으로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3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 의장이 장경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지난 5월1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협정한 결과 경북도의회의 공식방문이 성사됐다.

경북도의회는 러시아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면담과 의회 간 우호협력 협약체결, 현지 최대 민속 축제인 '으쉬아흐' 축제 개막식에 초대됐다.

만남에서 사하공화국 기관장들은 사하공화국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상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양 지방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장은 도의회가 양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의 가교역할을 적극 협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특히 양 의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향후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문화행사 추진 등 세부적인 교류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장경식 경북도의회장은 "러시아 현지에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경북도와 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문화·경제협력 추진에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EAR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이다.

또 다이아몬드·금·천연가스·석유·산림자원 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jun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 체결

경북도의회가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북방정책의 초석을 놓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장경식 의장)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 회를 방문, 우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날 방문단에는 장경식 의장을 비롯, 10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에서도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의장이 장경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올해 5월 1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협의한 결과 경북도议회의 공식방문이 성사된 것.

경북도의회에서는 총 4박 5일간의 일정 중 하바로프스크 경유로 인한 1박을 제외한 실제 교류기간이 3일인 촉박한 일정에서도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면담과 의회간 우호협력 협약체결, 현지 최대 민속축제인 '으쉬아흐' 축제 개막식에 초대되는 등 어느 때보다 알찬 일정을 소화했다.

각각의 만남에서 사하공화국 양 기관장들은 사하공화국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양 지방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밝혔으며,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도의회가 양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의 가교역할을 적극 담당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한-러 간 긴밀한 협력을 바라는 사하공화국의 열정이 일정에 반영, 니콜라예프 아이센 행정수반이 지난달 29일 환영행사를 직접 주관한 가운데 고골레프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공화국의 회의장은 우호협력 협약체결은 물론, 사하공화국 최대 축제인 '으쉬아흐' 축제에, 교류단을 초청,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한편 NEAR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다이아몬드?금?천연가스?석유?산림자원 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친선교류단을 이끈 장경식 도의회의장은 "중앙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사하공화국의 초청이 이뤄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현지에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향후 경북도-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문화?경제협력 추진에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양 의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향후 정기적인 상호방문 및 문화행사 추진 등 세부적인 교류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

경북도의회(장경식 의장)가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를 찾은 경북도의회는 우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방문단에는 장경식 의장을 비롯, 10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에서도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의장이 장경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공식방문이 성사됐다.

방문에서 의회는 총 4박 5일 일정 중 하바로프스크 경유로 인한 1박을 제외한 실제 교류기간이 3일인 촉박한 일정 속에서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면담과 의회간 우호협력 협약체결, 현지 최대 민속축제인 '으쉬아흐' 축제 개막식 참석 등 어느 때보다 알찬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양측은 "사하공화국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상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양 지방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특히 한-러 간 긴밀한 협력을 바라는 사하공화국 니콜라예프 아이센 행정수반이 지난 29일 환영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등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한편 NEAR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다이아몬드·금·천연가스·석유·산림자원 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경상북도와의 교류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친선교류단을 이끈 장경식 의장은 "중앙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사하공화국의 초청이 이뤄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현지에서 경상북도와 교류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향후 경상북도-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문화·경제협력 추진에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한편 양 의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향후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문화행사 추진 등 세부적인 교류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 체결

대한민국 30배 크기의 자원 보고(寶庫)에 신북방정책 초석 놓아

최종수정 2019.06.30 14:13:58 | 이영균 기자(=경북) | lyp0203@hanmail.net



▲경북도의회가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가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북방정책의 초석을 놓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장경식 의장)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 회를 방문, 우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날 방문단에는 장경식 의장을 비롯, 10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에서도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의장이 장경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올해 5월 1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협의한 결과 경북도의회의 공식방문

이 성사된 것.

경북도의회에서는 총 4박 5일간의 일정 중 하바로프스크 경유로 인한 1박을 제외한 실제 교류 기간이 3일인 촉박한 일정에서도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면담과 의회간 우호협력 협약체결, 현지 최대 민속축제인 '으쉬아흐' 축제 개막식에 초대되는 등 어느 때보다 알찬 일정을 소화했다.

각각의 만남에서 사하공화국 양 기관장들은 사하공화국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양 지방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밝혔으며,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도의회가 양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의 가교역할을 적극 담당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한-러 간 긴밀한 협력을 바라는 사하공화국의 열정이 일정에 반영, 니콜라예프 아이센 행정수반이 지난달 29일 환영행사를 직접 주관한 가운데 고골레프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공화국 의회의장은 우호협력 협약체결은 물론, 사하공화국 최대 축제인 '으쉬아흐' 축제에, 교류단을 초청,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한편 NEAR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다이아몬드.금.천연가스.석유.산림자원 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친선교류단을 이끈 장경식 도의회의장은 "중앙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사하공화국의 초청이 이뤄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현지에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향후 경북도-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문화.경제협력 추진에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양 의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향후 정기적인 상호방문 및 문화행사 추진 등 세부적인 교류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영균 기자(=경북) (lyg0203@hanmail.net)

참담기

경북도의↔회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체결

경상북도의회는 6월 26일 부터 30일까지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를 방문해 우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방문단에는 장경식 의장을 비롯, 10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에서도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의장이 장경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지난 5월 1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협의한 결과 경상북도의회의 공식방문이 성사된 것이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총 4박 5일의 일정 중 하바로프스크 경유로 인한 1박을 제외한 실제 교류기간이 3일인 촉박한 일정에서도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면담과 의회간 우호협력 협약체결, 현지 최대 민속축제인 '으쉬아흐' 축제 개막식에 초대되는 등 어느 때보다 알찬 일정을 소화했다.

각각의 만남에서 사하공화국 양 기관장들은 사하공화국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상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양 지방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밝혔으며,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도의회가 양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의 가교역할을 적극 담당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한-러 간 긴밀한 협력을 바라는 사하공화국의 열정이 일정에 반영, 니콜라예프 아이센 행정수반이 6월 29일 환영행사를 직접 주관했으며, 고골레프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공화국의회의장은 우호협력 협약체결은 물론, 사하공화국 최대 축제인 '으쉬아흐' 축제에 교류단을 초청,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한편 NEAR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다이아몬드,금, 천연가스, 석유, 산림자원 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경상북도와 교류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친선교류단을 이끈 장경식 도의회의장은 "중앙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사하공화국의 초청이 이루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현지에서 경상북도와 교류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향후 경상북도-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문화·경제협력 추진에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양 의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향후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문화행사 추진 등 세부적인 교류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체결

2019-06-30 16:36, 조인호 기자 [XML:KR:1903:지자체/정당]

#경상북도의회, #러시아극동연방공화국, #사하공화국, #사하공화국의회,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

대한민국 30배 크기의 자원 보고(寶庫)에 신북방정책의 초석 만들어



(왼쪽부터)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고골레프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공화국의회 의장 (사진 = 경상북도의회)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를 방문해 우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단에는 장경식 의장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에서도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의장이 장경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지난 5월 1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협정한 결과 경상북도 의회의 공식방문이 성사된 것이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총 4박 5일의 일정 중 하바로프스크 경유로 인한 1박을 제외한 실제 교류기간이 3일인 촉박한 일정에서도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면담과 의회간 우호협력 협약체결, 현지 최대 민속축제인 '으쉬아흐' 축제 개막식에 초대되는 등 어느 때보다 알찬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만남에서 사하공화국 양 기관장들은 사하공화국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상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양 지방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밝혔으며,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도의회가 양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의 가교 역할을 적극 담당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한-러 간 긴밀한 협력을 바라는 사하공화국의 열정이 일정에 반영, 니콜라예프 아이센 행정수반이 29일 환영행사를 직접 주관했으며, 고골레프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공화국의회의장은 우호협력 협약체결은 물론, 사하공화국 최대 축제인 '으쉬아흐' 축제에 교류단을 초청,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한편 NEAR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다이아몬드.금.천연가스.석유.산림자원 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경상북도와의 교류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친선교류단을 이끈 장경식 도의회의장은 "중앙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사하공화국의 초청이 이루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현지에서 경상북도와의 교류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향후 경상북도-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문화.경제협력 추진에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양 의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향후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문화행사 추진 등 세부적인 교류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경북도의회,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

대한민국 30배 크기 자원 보고(寶庫)에 신북방정책 초석 조성

기사입력 2019-06-30 10:24:11 | 최종수정 2019-06-30 16:45:54 | 강승탁 기자 | stking12@newdailybiz.co.kr



▲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왼쪽)이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장경식 의장)가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를 찾은 경북도의회는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방문단에는 장경식 의장을 비롯, 10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에서도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의장이 장경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공식방문이 성사됐다.

방문에서 의회는 총 4박 5일 일정 중 하바로프스크 경유로 인한 1박을 제외한 실제 교류 기간이 3일인 촉박한 일정 속에서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면담과 의회간 우호협력 협약체결, 현지 최대 민속축제인 '으쉬아흐' 축제 개막식 참석 등 어느 때보다 알찬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양측은 “사하공화국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상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양 지방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 이번 방문단에는 장경식 의장을 비롯, 10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에서도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이 동행했다. ©경북도의회

특히 한-러 간 긴밀한 협력을 바라는 사하공화국 니콜라예프 아이센 행정수반이 지난 29일 환영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등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한편 NEAR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다이아몬드·금·천연가스·석유·산림자원 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경상북도와의 교류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친선교류단을 이끈 장경식 의장은 “중앙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사하공화국의 초청이 이뤄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현지에서 경상북도와의 교류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향후 경상북도-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문화·경제협력 추진에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한편 양 의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향후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문화행사 추진 등 세부적인 교류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승탁 기자 (stking12@newdailybiz.co.kr)

이 기사 주소: <http://tk.newdaily.co.kr/site/data/html/2019/06/30/2019063000012.html>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체결... 신북방정책 초석 다져

기사입력 2019.06.30 17:17:37 | 최종수정 2019.06.30 17:17:37 | 노재현 | njhkukinews@gmail.com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를 방문해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NEAR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우리나라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이다.

이 곳에는 다이아몬드, 금, 천연가스, 석유, 풍부한 산림 등을 보유한 지원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장 의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1일 서울을 방문한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 의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당시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 의장은 장경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서울에서 회동을 가졌으며, 협의 결과 만남이 성사됐다.

방문단은 장 의장을 비롯해 10명의 의원,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 등으로 꾸려졌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협약으로 향후 경북도와 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협력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장 의장 일행은 4박 5일의 일정 중 하바로프스크 경유로 인해 1박을 제외한 실제 교류기간이 3일인 촉박한 일정에도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면담과 의회간 우호협력 협약체결, 현지 최대 민속축제인 '으쉬야흐' 축제 개막식참석 등 알찬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한-러 간 긴밀한 협력을 바라는 사하공화국의 열정이 일정에 반영돼 니콜라예프 아이센 행정수반이 지난 29일 환영행사를 직접 주관했으며, 고골레프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공화국의회 의장과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이번 친선교류단을 이끈 장경식 의장은 “중앙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사하공화국의 초청이 이뤄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현지에서 경북도와의 교류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향후 경북도-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문화·경제협력 추진에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njhkukinews@gmail.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

경북도의↔회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9.06.30 09:43:15 | 최종수정 2019.06.30 09:43:15 | 정재우 기자 | uw5802@ekn.kr

경북도의↔회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체결



사하공화국 우호협력 협약(사진-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6월 26일 부터 30일까지 러시아 극동연방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의회를 방문해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지방의회 차원의 한-러 교류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방문단에는 장경식 의장을 비롯, 10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동북아지역자치연합사무국(NEAR)에서도 김옥채 사무총장과 전문위원이 동행했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회장이 장경식 의장에게 연담을 요청해 지난 5월 1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협의한 결과 경상북도의회의 공식방문이 성사된 것이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총 4박 5일의 일정 중 하바로프스크 경유로 인한 1박을 제외한 실제 교류기간이 3일인 촉박한 일정에서도 사하공화국 행정수반 공식면담과 의회간 우호협력 협약체결, 현지 최대 민속축제인 '으쉬야흐' 축제 개막식에 초대되는 등 어느 때보다 알찬 일정을 소화했다.

각각의 만남에서 사하공화국 양 기관장들은 사하공화국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이 경상북도의 기술력과 인력교류를 통해 양 지방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밝혔으며,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도의회가 양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의 가교역할을 적극 담당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한-러 간 긴밀한 협력을 바라는 사하공화국의 열정이 일정에 반영, 니콜라예프 아이센 행정수반이 6월 29일 환영행사를 직접 주관했으며, 고골레프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공화국의회의장은 우호협력 협약체결은 물론, 사하공화국 최대 축제인 '으쉬아흐' 축제에. 교류단을 초청,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한편 NEAR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30배에 해당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다이아몬드, 금, 천연가스, 석유, 산림자원 등이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경상북도와의 교류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친선교류단을 이끈 장경식 도의회의장은 "중앙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사하공화국의 초청이 이루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현지에서 경상북도와의 교류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함에 따라, 향후 경상북도-사하공화국 간 실질적인 문화·경제협력 추진에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양 의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향후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문화행사 추진 등 세부적인 교류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첨달기